



제39대 총학생회 열린 공청회 지난달 19일 학생회관 B1 대공연장에서 제39대 총학생회 선거 열린 공청회가 개최됐다. 위 사진은 제38대 총학생회 '연'이 수렴한 사전 질의 및 참석자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배서현 기자 Hyeonee@

주요기사	
	사회보도 >>2면 HPV 예방 정책의 해답, 가다실 9가 백신
	기획 >>3면 짧아진 낮, 일상 속 다가오는 SAD
	특집 >>4-5면 시간을 잇는 기록, 신문사 비하인드
	만남 >>8면 움직임이 만드는 예술 무용과

총학생회 성명서, 교육환경 개선 논의 재점화

제38대 총학생회 '연'(이하 총학생회)은 지난달 12일 공식 인스타그램과 교내 6곳의 게시판에 4.89% 등록금 인상과 함께한 약속을 배신하고 학생을 기만하는 대학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이하 성명서)를 게시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대학본부가 등록금 인상 당시 제시한 교육환경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학우 의견을 배제한 채 공간 및 조경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등록금 인상 이후 진행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하계 방학 동안 진행된 다산관, 영실관 등 건물 보수 상태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2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학본부 규탄 성명서 이후 총장 면담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대학본부로부터 향후 교내 공간 및 조경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 대표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을 차기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정기 면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차기 총학생회가 총장 면담에서 약속받은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대양홀에서 열린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정식 종교단체가 아닌 신흥 종교 정

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관련 행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법적 문제와 별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체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

익명의 A 학우(이하 A 학우)는 성명서가 등록금 인상 대비 체감 개선점 부족과 학우 의견 배제에 치우쳐 학우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온건한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이후 사용자 투명한 요구, 소통 과정의 문제 지적, 대안 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면 균형 잡힌 성명서가 됐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사후 공지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학우 의견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 학우는 "학우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절차가 마련돼야 이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학생지원처 한창완 처장(이하 한 처장)은 총학생회가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다산관, 영실관 등의 건물 보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보수가 필요한 구역을 차례대로 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양AI센터 중앙 출입문 폐쇄와 학술정보원 앞 동상 설치의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전 안내가 없어 불편을 느낀 학생들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앞으로는 사업 이행 이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처장은 "총장과 각 부처, 총학생회 간 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영 기자 jinyoung@
김예린 기자 moondarae@
노인호 수습기자 vvidee@

▶7면으로 이어짐

제39대 총학생회 '청화' 당선

지난달 24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진행됐다. 제3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단일 후보였던 기호 1번 선거 운동본부 '청화'(이하 청화)가 당선됐다. 각 단과대학은 최종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50%를 넘겨 학생회를 구성했다. 예비연합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또한 당선이 확정됐다.

더 나은 학생 사회를 위한 권리 행사

제39대 총학생회 선거는 전체 유권자 1만 2,128명의 과반인 6,064명이 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었다. 이에 제38대 총학생회 '연'(이하 연)은 지난달 24일 오후 1시 40분부터 27일 오후 3시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 투표율을 안내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투표율이 35.10%에 그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 호소문을 게시해 학우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학생회관 지하 1층 대공연장에서 제39대 총학생회 선거 열린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에서 언론 3사(세종대신문사, SKBS, 영자신문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청화의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본지는 구글 폼을 통해 상시 의견을 수렴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전달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총학생회는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심위가 요구안을 거부할 경우 이를 보완할 실질적 협상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청화는 "관련 기록을 남기고 대학본부의 답변을 공식 창구를 통해 알리겠다"고 답했다. 최종 투표율은 50.77%를 기록하며 개표 요건을 충족했고 이후 연은 오후 7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개표 방송을 진행했다. 개표 결과 청화는 찬성 5,778표(93.84%)를 얻어 당선됐다.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된 경영경제대와 사회과학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이 학생회 구성에 성공했다. 단과대별 최종 득표율은 ▲공과대 60.09% ▲생명과과학대 60.04% ▲인공지능융합대 51.44% ▲인문과학대 51.54% ▲예체능대 55.21% ▲자연과학대 54.94% ▲호텔관광대 57.39%를 기록했다.

"책임감과 진정성 갖춘 총학생회 만들 것"

청화의 나종준 정후보(이하 나 후보)는 "응원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2026년 한 해 동안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앞장서서 행동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연이고 민했던 학생자치사회의 가치와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이어받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나 후보는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춘 총학생회를 만들겠다"며 학우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부탁했다.

연의 김승승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학생자치사회의 발전을 위해 투표를 행사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당선된 청화에는 "학우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밤낮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선거 운동 기간에 학우들 앞에서 외친 목소리와 열정을 잊지 않고 1년간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차기 총학생회를 위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공식 창구를 통해 연의 추가 사업과 공약 이행도 및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2026년에도 학생자치기구를 향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양수영 기자 suyoung@
배서현 기자 Hyeonee@



2025-2학기 세종대신문

종간 알림

한 학기 동안 세종대신문을 사랑해주신 세종대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대신문은 다음 학기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학 단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굿JOB 굿세종' 성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학우들의 성공적인 취업 및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운영한 25-2학기 비교과 프로그램 '굿JOB 굿세종'이 63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노션(Notion) 활용 포트폴리오 제작, AI 기반 취업 전략 등 실무형 커리큘럼을 통해 학우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 ICT 학점 연계 인턴십' 우수 참여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5년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사업에서 우수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10년간 총 270명의 학우가 참여했으며 실습 전 직무교육부터 근무 점검, 현장 기업 방문까지 체계적 관리로 프로그램 내실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우들은 ICT 직무 프로젝트에 참여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서비스 ▲하드웨어 설계 및 구축 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학생경력개발처 하진용 처장은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뮤지엄갤러리, 기획초대전 개최

우리 대학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하연수 작가(이하 하작가)의 한국화 개인전 '일상의 풍경'과 권원덕 작가(이하 권작가)의 개인전 '여백: 쓰임을 사유하다'를 개최했다. 하작가는 강원도 강릉의 자연과 일상 속 풍경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화면에 담아냈고 권작가는 전통 소목 기법을 통해 ▲전통 ▲물성 ▲관계성의 조형적 언어를 표현했다. 두 전시는 각각 관람객에게 내면 성찰과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세종대신문

발행인	엄종화	주간교수	고영대	간사	최지훈
편집국장	박혜린	교육부장	배서현	기획1부장	이재원
기획2부장	양수영	홍보부장	김예린	총무부장	김진영
대표전화	02) 3408-3114				
신문사	02) 3408-3352				
대표메일	press@sejong.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신문사 (학생회관616호)				

독자 모니터링

변화에 발맞춰 재빠르게,
언론사의 의무란



이정연(데이터사이언스학·23)

지난 708호는 최근 대학 사회를 둘러싼 갈등과 정책 변화를 폭넓게 조망하며 대학언론이 다뤄야 할 주제를 시의성 있게 포착했다. ▲재학생 보호 ▲학교폭력(이하 학폭) ▲화·세척 개정 등 학생 사회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면은 변화의 급류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들었다.

먼저 1면은 재학생 보호 제도 개선, 학생 자치 규정 개정과 같은 직접적 권익 문제를 전면에 배치해 독자의 관심을 정확히 겨냥했다. 2면의 두 기사 모두 학우들의 현실적 관심사인 취업 지원과 학폭 기록 대입 반영 문제를 다루며 대학언론의 의의를 보였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사는 프로그램 소개에 충실했지만 취업 성과나 개선 과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반면 학폭 기록 대입 반영 기사는 정책의 배경과 논란을 균형 있게 짚어 높은 공론화 기여도를 보였다. 제도 변화가 학생에게 미칠 구체적인 영향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됐을 것이다.

3면 학술 면에서는 저궤도 위성 증가가 초래하는 ▲광해 ▲사이버 보안 ▲전파 간섭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국제 규제와 국내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해 높은 정보성을 보여줬다. 특히 다양한 연구 사례와 수치 인용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다만 후반부에서는 기술 동향과 포획 위성 등 다양한 내용이 한 번에 제시돼 주제가 다소 분산됐다. 6·7면은 다양한 읽을거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신문의 풍성함을 더했다. 교수칼럼은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지적 완성도를 높였다.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뛰어난 지면 구성이다.

8면은 국어국문학과 인물 인터뷰를 통해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질문 구성과 기사 흐름이 자연스러워 인터뷰 대상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전반적으로 읽는 즐거움과 콘텐츠 활용도를 동시에 높인 알찬 지면이었다. 지난 708호는 대학언론이 단지 정보 전달자에 머물지 않고 감시자·분석자·대변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우의 권리를 지키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대학언론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준 호수였다. 앞으로도 독자의 삶과 맞닿은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3면 학술 면에서는 저궤도 위성

우리 대학 보건실,
학우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 대학 보건실은 간단한 응급 처치와 상비약 제공 등 학내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우리 대학 보건실 이용 현황과 학우 인식에 대해 알아봤다.

학생 10명 중 6명 '운영 사실 몰라'

보건실은 집현관 109A호에 위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또한 학우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급약품 지급 ▲목발 대여 ▲안정실 이용 ▲응급처치 ▲질병 치료와 예방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우리 대학 보건실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활용)를 실시했다. 또한 같

은 기간 공개토관, 총무관, 학생회관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우리 대학에 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181명 중 109명(60.2%)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한 '보건실 이용 경험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142명 중 112명(79.4%)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보건실 운영 시간과 이용 가능 서비스 등의 안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123명 중 105명(85.3%)이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익명의 A 학우는 "우리 대학에 보건실이 있는지 몰랐다"며 "포스터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실과 같은 의료기관의 상

담을 받는 것이 필요"

보건실은 낮은 이용률에 대해 "대학생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질병 이환율이 낮아 보건실 이용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청년층의 대면 서비스 기피 현상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려는 경향도 보건실 이용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보건실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실은 "최근 위중한 환자의 신고와 방문이 증가해 응급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해 응급환자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했고 올해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들것을 구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도 학생 건강을 위해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연 1회 무료 흉부 X-ray 촬영 검진과 급원클리닉을 제공한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홈페이지에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관련 건강 정보를 게시해 대표적인 질환과 특징, 원인, 증상 등을 안내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학건강센터를 운영 중이며 ▲건강교육실 ▲약국 ▲진료실 ▲학생의료공제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건강센터에서는 수막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의 감염병 예방접종과 처방조제 및 무료 투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예린 기자 moondarae@

이재원 기자 jaewonii@

노민호 수습기자 vvidee@



학술정보원 앞 동상 설치 지난달 학술정보원 앞 등나무 휴식 공간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동상과 의자가 설치됐다. 위 사진은 학우들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이 동상을 중심으로 한 조형 공간으로 재구성된 모습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

사회보도

가다실 9가 미지원, HPV 백신 지원 체계의 한계

국내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이하 HPV) 감염 건수가 지난 2020년 1만 945건에서 2024년 1만 4,534건으로 32.8%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이하 NIP)은 여전히 가다실 4가 백신(이하 4가)만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OECD 주요 국가들은 가다실 9가 백신(이하 9가)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현행 HPV 백신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공백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4가 중심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 대두

HPV는 주로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저위험군인 HPV 6·11형은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고위험군인 16·18·45형 등은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 4가는 HPV 6·11·16·18형만 예방할 수 있지만 9가는 31·33·45·52·58형을 추가로 예방해 더 넓은 범위의 고위험군 감염을 차단한다. 현재 NIP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4가만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지원한다.

본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HPV 백신 지원 체계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인식을 알아

보고자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활용)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군자관, 총무관, 학생회관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4가 혹은 9가를 접종한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117명 중 90명(76.9%)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비용 부담 ▲백신 정보 부족 ▲주변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이 언급됐다. 실제로 9가의 1회 접종 비용은 약 15~25만 원으로 3회 접종 시 최대 1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여성에게만 4가를 지원하는 현행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응답자 113명 중 98명(86.7%)이 '성별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 표준은 9가, 커지는 HPV 백신 지원 체계 격차

4가로는 예방하지 못하는 고위험군 HPV 유형은 자궁경부암 유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궁경부암 유발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HPV 16·18형 외에도 52·58형 또한 높은 암 유발 연관성을 보인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6만 건의 18~79세 여성 검체를 분석한 결과 국내 HPV 감염은 16형(25.6%)이 가장 많았고 52형(25.2%), 58형(11.5%)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민경진 사무총장(이하 민 사무총장)은 "4가 기반의 현행 지원 체계는 최소 요구 수준의 암 예방 효과는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암 예방 효과와 국내 HPV 유형별 분포를 고려하면 NIP에서 9가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9가 중심 백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4가 판매를 중단하고 9가만을 지원한다. 네덜란드는 9가 도입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계획 중이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성별 구분 없이 9가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대만은 지난 9월부터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9가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

NIP 9가 지원, "단계적 도입 필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HPV 백신 관련 NIP 예산은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2014년생 남아 22만 명이 4가 전액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 사무총장은 "HPV 예방 정책의 방향성을 개선한 첫걸음"이라며 "남아 대상 접종 확대는 집단 면역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NIP의 9가 도입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민 사무총장은 9가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 "공급 안정성, 예산 및 조달 단가 등의 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며 ▲12세 여아 ▲12세 남아 ▲기타 고위험군 순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9가 3회분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 이력에 따라 1~2회분만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민 사무총장은 이 정책을 국가정책 전환을 촉진하는 선도적 모델이라고 평가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9가 전환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공중 보건적 효과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총주시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매칭 재정지원 ▲조달 단가 인하 ▲지역 단위 효과분석 ▲지자체 실행 역량 강화 ▲표준화된 중앙 정부의 지침 등 다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 사무총장은 전체 HPV 질병 부담의 감소 및 성별 구분 없이 접종 시 집단 면역 강화, 남성 HPV 관련 암 예방 효과 확대 등의 공중 보건적 이점을 강조했다.

양수영 기자 suyoung@

김진영 기자 jinyoung@

박혜린 수습기자 been423@

▶ 7면으로 이어짐

새로운 계절과 함께 찾아온 우울감 계절성 정서장애 (SAD)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우울감이 매년 반복되며 일상과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계절성 정서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 이하 SAD)'를 의심할 수 있다. 이에 SAD의 발병 원인 및 증상,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재원 기자 jaewonii@ 김예린 기자 moondarae@ 박혜빈 수습기자 been423@

햇빛이 사라지면 마음도 흐려진다

SAD는 특정 계절에 반복적으로 우울감이 나타나는 기분장애의 한 형태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의 DSM-5 진단 체계에서는 이를 '계절성 양상을 동반한 재발성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Recurrent with Seasonal Pattern)'로 분류한다. SAD는 주로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증상이 시작되며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호전된다.

미국 국립정신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이하 NIMH)에 따르면 SAD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약 3배 더 흔하게 발병하며 겨울철 SAD의 발병률이 여름철보다 훨씬 높다. 또한 일조 시간이 짧은 고위도 지역일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SAD 진료 환자는 7만 7,000여 명으로 2009년 대비 1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주 좋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권의정 원장은 '국민의 약 15%가 겨울철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 중 2~3%는 SAD를 겪는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를 '단순 심리적 위축이 아닌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전형적 우울증과 SAD는 공통적으로 ▲무기력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전형적 우울증이 ▲불면 ▲식욕 감소 ▲체중 감소를 보이는 데 반해 SAD는 ▲과수면 ▲식욕 증가 ▲체중 증가 등 비전형적 우울증의 특징이 나타난다. 고당류·고탄수화물 식품을 찾으며 단기간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사례도 흔하다.

의학계는 SAD의 핵심 원인을 일조량 감소로 본다. SAD 개념을 최초로 규명한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대학 Norman E. Rosenthal 박사(이하 로젠탈 박사)는 광주기 이론(Photoperiodic Theory)을 통해 일조량 감소가 생체 리듬과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우

울감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빛 자극 부족으로 생체리듬이 뒤로 밀리는 위상 지연(Phase Delay)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이 외부 환경적 시간보다 늦게 설정되는 현상이다. 일주기 리듬은 시상하부 안쪽에 위치한 시교차상핵*(Suprachiasmatic Nucleus, 이하 SCN)에 의해 뇌에서 중앙적으로 제어된다. 겨울철에 일조량이 감소하면 SCN에 전달되는 빛 신호가 약화돼 일주기 리듬이 밀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부 생체 시계와 외부 환경적 시간이 맞지 않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피로를 겪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계절이 바뀌며 짧은 기간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만으로 이를 SAD라 진단하지 않는다. APA는 가을, 겨울에 우울 증상이 시작해 봄에 호전되는 패턴이 최근 2년 이상 반복되는 것을 진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진단 시 로젠탈 박사의 계절성 양상 평가 설문지(Seasonal Pattern Assessment Questionnaire, SPAQ)를 활용해 계절 변화에 따른 수면, 기분, 체중 등의 변동 폭을 측정한다.

*시교차상핵: 뇌 시상하부에 위치해 24시간 주기의 생리적 리듬을 조절하는 중심생체시계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 SAD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 요인도 SAD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 흐린 날씨,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은 일조량을 감소시켜 세로토닌 합성을 방해한다. 햇빛 부족은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각성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진다. 한국 성인 948명을 대상으로 한 일일 일조량 노출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일조량 노출이 적은 집단일수록 건강상태가 낮고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

도시 환경 구조도 SAD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는 도로가 깊은 협곡처럼 형성돼 햇빛이 지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도시 캐니언 효과(Urban Canyon Effect)로 인해 일조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NIMH는 SAD의 치료 방법으로 ▲광 치료(Light Therapy) ▲비타민 D 보충 ▲인지행동치료(이하 CBT-SAD) ▲항우울제 복용 등을 제시한다. 광 치료는 1980년부터 사용된 SAD의 주요 치료 방법으로 1만 LUX 이상의 고

강도 조명을 30~45분가량 비취 일조량 부족을 인위적으로 보완한다. 이는 빛이 망막을 통해 SCN에 도달하면 송과선에 신호를 보내 과도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한다. Edda Pjrek의 연구에 따르면 광 치료를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 대비 평균 우울점수가 0.37만큼 낮았으며 치료 반응률은 1.42배 높았다. 또한 SAD 환자 중 상당수가 비타민 D 결핍을 보이기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도 도움이 된다. CBT-SAD는

계절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행동 활성화 과정을 통해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다시 실천하도록 도와 우울감을 상쇄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이하 SSRI) 계열의 항우울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SSRI 약물은 ▲에스시탈로프람(Escitalopram) ▲파록세틴(Paroxetine) ▲플루옥세틴(Fluoxetine) 등이 있다.

SAD, 나도 해당될까? 〈SAD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자. 각 항목에 대해 해당 없음(0점)/약간 해당한다(1점)/매우 해당한다(2점)로 점수를 매기고 총점을 확인한다. 총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다. 증상을 방지하지 말고 다가오는 계절을 모두 건강하게 맞이하기를 바란다.

1. 기분이 자주 가라앉고 우울한 느낌이 지속된다.
2. 무기력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힘들다.
3. 수면 패턴에 변화가 있으며 지나치게 잠이 오거나 반대로 잠이 오지 않는다.
4.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돼 일이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
5.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되고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꺼리게 된다.
6. 체중 증가나 식욕의 변화가 나타난다.
7. 날씨가 따뜻해지면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울감이 지속된다.

출처: 구로 연세병원정신과

생활 속 SAD 예방법

SAD는 일상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증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다음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SAD 완화 전략이다.

1. 의도적으로 자연광 노출 늘리기

- 미세먼지 농도가 낮고 일조량이 충분한 날 오전 20~30분 산책하기. 자연광은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해 기분 안정에 도움이 된다.
- 책상, 침대의 위치를 해가 비치는 창가 쪽으로 배치하고 낮 동안 커튼을 열기. 실내 채광을 최대한 확보해 우울감을 완화한다.

2. 규칙적인 생체리듬 유지

- 매일 일정한 시간 기상 및 취침하기. 생체리듬이 안정되면 계절 변화로 인한 우울감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 자기 전 전자기기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사용 또는 취침 1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전자기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과수면 또는 비정상적 피로감을 막을 수 있다.

3. 건강한 식단과 영양 섭취

- 고등어·버섯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세로토닌 조절과 기분 안정에 관여해 겨울철 부족해지는 활력을 보완해준다.
-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많은 견과류·닭고기, 오메가-3 식품인 생선·호두 등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세로토닌 합성을 돕고 겨울철 에너지 저하를 완화한다.

4. 계절 감각과 정서 관리

- 명상, 호흡 운동하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우울 및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 하루 기분, 활동, 수면 시간 간단히 기록하기. 우울 패턴을 파악하고 SAD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기자들이 말하는 2025년의 기록

2025년 종간호를 맞이해 기자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1년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세종대신문사(이하 신문사)의 기록을 이어온 기자들이 전하는 종간 소감을 들어봤다.

기록의 뒤편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며

종간호를 맞아 한 해 동안의 신문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무엇을 배우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돌아봤다. 매호 마감의 압박 속에서도 더 나은 기사를 위해 고민했고 취재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목소리들은 기록의 책임을 다시금 일깨웠다. 매주 신문사에서 회의를 하며 마감날 새벽까지 문장을 다듬었고 때로는 취재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기도 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은 세종대신문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토대였다.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함께 고민한 동료들의 존재는 한 해를 버틸 수 있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 각자의 전공과 성향이 다름에도 하나의 지면을 완성하기 위해 의견을 맞춰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에도 기자의 시선과 고민이 담겨 있다. 신문사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뤄진 협업은 한 해 동안 가장 값진 경험으로 남았다.

다음 해의 신문은 올해보다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열린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고 우리 대학이 놓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비추며 새로운 시도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신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올해의 모든 경험이 그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박혜린 기자 hyerin@

사라진 것이 말해준 것들

25·2학기는 필자가 신문사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학기였다. 인원 축소로 지면 개편이 불가피했고 오랜 기간 이어 온 5개의 학원 보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이런 대대적인 개편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었다. 다음 학기부터 편집국장을 맡게 되는 만큼 인원이 충원된다면 다시 기존의 지면 구성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학내 취재를 주로 맡아 외부 기관과의 컨택 경험이 전무했다. 그러나 706호 사회보도로 청년 수면 부족을 다루며 대한수면학회장님을 인터뷰하게 됐고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기사를 발로 뛰었다는 사실은 기자로서 큰 뿌듯함으로 남았다. 필자의 마음 끝이 보이지 않던 기자 생활도 어느덧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 필자의 마음 속에는 옆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 기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종종 잘 알고 있다며 독려해 준 독자들에게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

배서현 기자 Hyeonee@

기자라는 이름을 배워가는 중

입학식 날 우연히 본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현수막이 신문사 활동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입사 후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더 '리얼리즘' 그 자체였다. 취재원 컨택, 취재요청서 작성, 기사 작성, 레이아웃 제작 등 모든 과정이 낯설었고 그때마다 선배 기자들에게 묻고 고치며 배웠다. 어느새 그 시간들이 쌓여 종간호를 준비하게 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다.

25·2학기에는 기획부장을 맡아 처음으로 기획 면을 책임지게 됐다. 팝업스토어를 주제로 기사를 준비하던 중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왔나요?"라고 물으셨다. 그 한마디가 필자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기자의 기본은 현장을 찾고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인데 그 기본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성수동으로 향했다. 자주 가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니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다. 이때 '같은 공간도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느끼며 기사란 결국 책상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와 캠퍼스 곳곳에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전해줄 기자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현장을 찾고 더 많이 듣고, 보고 싶다.

이재원 기자 jaewonii@

기자로서의 첫해, 여섯 번의 발행이 남긴 것

709호를 마치며 어느덧 필자의 여섯 번째 발행이 끝났다. 전역 후 복학과 동시에 신문사에 들어온 선택이 지난 한 해 필자의 삶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았다. 수습기자로 처음 703호 조판장에 들어갔을 때의 낯설고 혼란은 아직도 생생하다. 다른 기자들의 글만 읽던 그 시간이 기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었다. 704호부터는 직접 기사를 맡아 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보도에 참여한 우리 대학 공식 애플리케이션 보도에서 취재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기사를 완성했던 과정은 신문사가 아니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귀한 기회였다. 기사는 한 사람이 쓰지 만 한 사람의 손만 거쳐 완성되지는 않는다. 책임기자와 교육부장, 편집국장까지의 검토를 거 치며 문장 하나까지 다듬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자의 방향성과 깊이가 잡혀간다.

마감에 쫓기고 취재 일정을 조율하며 수차례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은 때로는 버겁기도 하다. 그럼에도 필자의 이름이 실린 기사가 결과물로 남는 경험은 그 어떤 활동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값지고 의미있다. 그 순간들이 기자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됐다. 내년에는 교육부장으로서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후배 기자들이 안정적으로 기사 작성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신뢰받는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여섯 번의 발행이 필자에게 성장의 기록이었다면 앞으로의 발행은 그 성장을 확장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

공모전 도전이 남긴 확장 경험

신문사는 일 년에 여덟 번, 한 학기에 네 번의 신문을 발행한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매 호를 제때 발간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 가운데 706호에서는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에 동료 기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시작은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취재와 자료 검토, 기사 구성까지 기존 706호 일정에 더해져 조판날 새벽이 돼야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모전 참여는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 생명존중 교육에서 얻은 시각을 바탕으로 기존 기사 형식에서 벗어난 글을 시도한 경험은 즐거운 도전이었다. 특히 수상을 통해 필자의 기사가 우리 대학 학우나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독자에게까지 전달되고 평가받는 경험은 값진 성취였다.

신문사는 내부 체계가 매우 촘촘하게 구축돼 있다. 기사에 사용하는 용어부터 취재원에 게 보내는 컨택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신문사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는 분명한 기준과 선례가 존재하며 이는 공식성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이번 공모전 참여가 선례로 자리 잡아 신문사가 앞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양수영 기자 suyoung@

선택의 무게, 책임감 하나로 버티는 연습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으로 신문사에 들어왔다. 수습기자 교육을 받고의 욕이 불타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가족이나 많은 과제와 팀플, 시험공부에 신문사 업무까지 더해지면 매일이 버거움의 연속이었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새도 없이 눈앞에 닥친 업무를 처리하기 바빴다.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한다는 설문에 부풀어 들어왔지만 정작 현실은 그런 기본을 느낄 틈조차 없었다. 이제서야 아주 조금의 여유를 찾았지만 지난 두 달간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선배 기자들도 같은 고충을 겪었다는 말이 적잖은 위로가 됐다. 고작 수습기자 명함을 달고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신문사를 이끌어가는 선배 기자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다 함께 고생해서 나온 신문에 적힌 필자의 이름을 볼 때면 뿌듯함을 느낀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책임감이 따른다. 내년에는 정기기자로써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지만 책임감 하나로 버티며 마침표를 찍고 싶다. 더 많은 학우가 다음 해의 세종대신문을 기대해주기를 바란다.

노민호 수습기자 wvidee@

순간순간의 소중한 기억들로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포스터를 처음 본 날, 지원서를 썼던 날, 최종 면접을 봤던 날들은 필자에게 아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합격 문자를 받았던 날은 강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자랑하고 축하받은 기억이 선명하다. 기자가 된다는 꿈에 부풀어 모든 것이 신나고 설렘이었다. 그러나 신문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채로 시 작한 기자 생활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수습기자 시절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자책이 컸고 정기기자가 됐을 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직접 기사를 책임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두려운 것이 많고 어려운 순간도 많다.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면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학우를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과 보람 덕분이다. 처음으로 책임기자를 맡았던 706호 '대양AI센터 중앙 출입문 폐쇄' 보도에 대해 학우들이 의견을 나누고 정 보를 얻어가는 모습이 필자를 가장 기쁘게 했다. 앞으로의 기자 생활도 순탄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순간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기자 생활에 최선을 다 하고 싶다. 필자의 기사가 학우들에게 닿는 날을 기대한다.

김예린 기자 moondarae@

신문사에서 마침표를 찍을 펜을 잡다

방황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긴 휴학기와 치열했던 대학 생활이 어느덧 저물어간다. 그 끝자락에서 만난 신문사 지원은 마무리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다시 대학 생활에 열정을 갖게 만들었다. '너무 늦은 시작이 아닐까?'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신문사에서 만난 선배 기자들은 그런 걱정이 쓸데없었음을 깨닫게 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늘 자신에게 엄격하고 겸손한 자세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은 큰 배움이었다.

필자에게는 내년이 아마 대학 시절 마지막 활동이 될 것이다. 끝이 보인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동시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설렘이 더 크게 다가온다. 어떤 취재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성장하게 될지 생각하면 자연스레 마음이 된다. 신문사 활동을 통해 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자, 그리고 신문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걱정이나 주저함보다는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붙들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이 여정을 이어가고자 한다.

박혜빈 수습기자 been423@

전임 편집국장들이 바라본 2025 세종대신문

2025년 종간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발간된 세종대신문에 대한 전임 편집국장들의 평가와 그들이 후배 기자에게 전하는 말을 담아왔다.

팩트, 기록, 대학 그 사이 어딘가

처음 기고를 요청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그러나 하나가 틀어지면 도미노처럼 한 호수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수락에 신중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한 줄의 무게에 담긴 정성을 알아 더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일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수락하기를 잘했다. 지금은 취업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학우의 관점과 생각으로 여겨주기를 바란다.

신문에는 학우들의 피부에 와닿는 보도 기사가 주를 이뤘다. ▲공간 문제 ▲대양AI센터 출입문 폐쇄 ▲등록금 인상 ▲흡연부스 등 여전히 학우들의 눈과 입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또한 과감히 흡연부스 후속 보도를 내고 재학생 보험과 학생자치규정 개정 등을 조명했다. 집요함과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는 기자들의 열정을 느꼈다. 앞으로도 팩트로

증명하며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학보사가 됐으면 한다.

보도 외에 필자의 머릿속 기획에만 그쳤던 문학 공모전에 만점을 주고 싶다. 열렬히 토론하고 기획한 후 심사관 섭외와 홍보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련의 과정이 눈에 선하다. 냉철한 시각과 팩트 또한 중요하지만 이런 기획은 기록의 관점에서 뜻깊다. 2025년에 사는 우리의 생각도 언젠가 학할 후배가 한 번쯤 읽어볼 수 있으니 말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3년 전 학보사 활동 당시에는 업무에만 열중했으나 돌아보니 추억과 인연이 남았다. 지금도 시시콜콜 그때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학보사가 아니어도 좋다. 동아리와 소모임에서 친구를 사귀고 인간적 가치를 좇아도 된다. 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혀 보고 고전과 철학에 깊게 빠져보는 것도 괜찮다. '대학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종간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고군분투한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조수용(22·2학기 편집국장)

더 깊어진 시선과 함께 내일을 밝히는 세종대신문

최근 발행된 신문들을 살펴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학우 중심의 시선'이었다. ▲교내 흡연부스 실태 ▲등록금 문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내 생활 ▲자유전공학부 운영 등 모두 우리 대학을 깊이 관찰하고 학우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우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담아내려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사회보도에서도 경력채용과 같은 취업난, 국민연금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풀어내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우들에게 왜 이 쟁점이 중요한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또한 동문 인터뷰는 내용과 디자인 모두 한층 다채로워져 읽는 재미가 더해졌다. 다양한 진로를 갖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점이 돋보였다. 이전 신문에서 볼 수 없었던 '작심삼일' 체험 수기는 신선한 시도였다. 기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 학우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다. 코로나19 시기 신문사 활동을 했던 처지에서 봤을 때 최근 기사의 주제와 취재 방식이 더욱 풍부해지고 생생해졌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후배 기자들이 어떤 꿈과 목표를 지니고 신문사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이곳에서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기들과 함께 탐험하러 만든 기사가 학우들에게 단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자 생활은 아주 값있다.

필자가 기자로 활동했던 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가 텅 비고 학우들을 직접 만나 취재하기 어려워 대부분 서면으로 인터뷰를 사, 직접 발로 뛰며 얻어낸 진짜 이야기를 많이 담아주기를 기대한다. 기사 하나가 완성되기까지의 그 어떤 단계도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 과정을 묵묵히 헤쳐나고 있는 후배 기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의 세종대신문사가 더 멋진 신문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김가은(22·1학기 편집국장)

자부심의 자리

애정을 쏟았던 이곳이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세종대신문사는 필자의 대학 시절 자부심이었다. 후배 기자들이 쌓아온 신문들을 보니 필자가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고 여전히 자부심이 돼 주는 이곳에 고마울 따름이다.

그간의 지면은 누가 봐도 치열한 노력을 담고 있었다. 특히 신문의 얼굴인 1면에서 ▲등록금 ▲수강신청 ▲학내 투표권 등 학우들의 핵심 관심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학보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즉 학내 사안에 집중하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명을 잘 해내고 있다. 대학과 학우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야말로 학보사의 존재 이유다. 적재적소의 인터뷰와 깔끔한 내용 구성, 시각적 완성도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학업과 학보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는다. 본인의 바이라인이 남는 기사는 대학의 역사에 새겨지며 취재 과정 속 에피소드와 당시의 감정은 훗날 '최선을 다한 나'라는 훌륭한 자산, 즉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될 것이다.

독자의 반응이 적어 마음이 꺾일 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편집국장 시절 필자를 가장 위축시킨 고민이었다. 그러나 외부의 무심한 시선이 곧 기자의 성취를 정의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학보사는 학교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감시하고, 기록함으로써 존재 자체로 이미 큰 힘을 발휘한다. 한 발짝 떨어진 이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다.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란다. 그 자부심을 갖고 늘 그랬듯이 후회 없이 몰두해 주기를 바란다.

서민지(23·1학기 편집국장)

신문의 힘은 보도에서 온다

열정을 가진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소통의 장을 열어나가는 것. 그 지점에서 비로소 단순한 소식지가 아닌 신문이 된다. 퇴임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바라본 세종대신문은 신문다움을 한층 더 깊게 끌어올리며 꾸준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참과 밝음의 선봉이라는 분명한 가치 아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학내 소식을 균형 있게 다루고 쟁점을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진하고 있는 세종대신문사에 응원의 박수를 먼저 보낸다.

올해 발간된 학보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며 기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신문의 뼈대가 되는 보도 기사에서 그들의 탐방욕이 짙게 배어있음을 느꼈다. 대학 본부와 학생 자치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 설문조사와 다양한 학우 인터뷰를 담아낸 보도는 남다른 깊이감을 보여줬다. 또한 '교내 휴게 공간'에 관한 보도처럼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찾아가는 취재는 그들의 열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지면의 신뢰를 한층 높였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움도 있었다. 보도 기사와 사실의 지면을 연결된 기사처럼 구성된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독자가 보도를 읽다가 이어짐 표지를 따라 지면을 넘겼을 때 사실이 등장하는 상황은 자칫 신문의 논조를 보도의 연장선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을 듯하다. 해당 사실이 앞선 보도를 바탕으로 쓰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팩트와 오피니언의 경계가 분명히 유지될 수 있는 지면 구성도 고려해 볼 적하다.

반면에 이전 신문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며 연속성 있는 취재를 이어 나간 점은 매우 좋았다. 세종관, 흡연 구역 문제 등 과거에 살펴봤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조명해 나가며 일관된 논조로 설득력 있는 신문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단단해져 가는 과정에는 연마가 필수다. 세종대신문의 탄탄한 기사들을 보면 그 이면에 얼마나 큰 기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비록 지금은 신문 일을 평가하는 처지지만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 같다. 참과 밝음의 선봉, 그 정신 하나를 오롯이 지켜나가기 위해 밤을 새우며 신문을 만들어 온 후배 기자들에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문지원(23·2학기 편집국장)

변화의 자리에서 다시 펼친 세종대신문

오랜만에 신문을 펼치니 익숙함과 새로움이 한 번에 몰려왔다. 기자로 활동했던 2년 반이라는 시간은 필자에게 단순한 교내 활동이 아니었기에 필자가 떠난 뒤에도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꺼우면서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독자의 시선으로 읽히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자의 눈으로 세밀한 부분을 살피는 필자의 모습에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올해의 세종대신문은 익숙한 골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곳곳에서 분명한 변화가 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심삼일'이다. 단순 체험기가 아니라 기자의 현장성과 감각이 온전히 드러나는 기획으로 무뎠다. 후배 기자들이 직접 고안한 이 기획은 신문사의 가능성이 여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집과 만남 면 역시 같은 결을 이루고 있었다. 지면의 틀을 넓히려는 접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성, 그 내용에 맞는 디자인까지. 모두 독자에게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었다. 결국 신문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건네는가'에서 힘을 얻는다. 세종대신문은 그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 필자 역시 늘 새로움을 더하고 싶었으나 마감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익숙함을 선택할 때가 있었다. 그렇기에 지금의 변화들이 단순한 편집적 선택을 넘어 기자의 용기와 의지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움직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세종대신문의 앞으로의 방향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세종대신문은 일이 벌어진 뒤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먼저 감지하는 언론이어야 한다. 모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보다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학보사의 존재 이유이고 필자 또한 이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기사가 단번에 변화를 만들진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하나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세종대신문이 관심을 쫓는 신문이 아닌 관심을 만들어내는 신문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전 편집국장으로서, 그리고 한때 같은 자리에서 고민했던 선배로서, 후배 기자들이 새 내러갈 다음 페이지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김재원(24·1학기 편집국장)

교수칼럼

앞서가는 글로벌 통합 교육의 우리 대학



이수연 교수 (행정학)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이하 케데헌)’의 가상 걸 그룹 헌트릭스(HUNTRIX)가 부른 ‘Golden’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비롯해 각국의 대중음악 차트 상위권을 휩쓸면서 K-콘텐츠의 글로벌 헤게모니 전조 현상과 같은 신드롬을 확산시키고 있다. 케데헌 속 호랑이 캐릭터 ‘더피’는 미국 대표 백화점 브랜드인 메이시스(Macy’s)

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등장했다. 또한 서울의 연령별 3대 핫 플레이스인 ▲성수(20~30대) ▲강남(40~50대) ▲명동(60~70대) 거리는 외국인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케데헌에 등장한 장소와 음식을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방문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우리 대학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내국인 재학생보다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마주치는 듯하다.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대만, 일본 등에서 기술자들을 받아들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는 고도경제성장과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했다. 여기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으로 결혼이

민자가 유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 전체 인구의 5% 정도인 2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순수한 한국인’은 사라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의 가족 친화적 정책, 고용, 교육, 보육, 주택 등이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지난 2023년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중점을 두는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국내 정착을 돕고 지방 소멸을 막으며 경제성장

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통합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회·권리의 평등 ▲다양성 존중 ▲소속감 형성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중앙·지방정부·민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다수의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꽤 높고 실제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학위 취득 후 모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경험은 바로 우리 대학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사

회통합은 바로 우리 대학 안에서 제대로 시작돼야 한다. 물론 우리 대학 내국인 재학생들 또한 다가올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훈련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같 길이 멀어 보인다. 먼저 교양강좌를 통해 내·외국인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학기 처음 개설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의 수강생은 대부분 내국인 재학생들이었고 영어트랙 외국인 유학생은 1명뿐이었다. 영어트랙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재학생은 각각 분리된 강의를 듣고 있으며 서로 같은 강의를 듣는 경우가 드물어 자연스럽게 만날 일이 없다. 이는 영어트랙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아직 높지 않고 내국인 재학생의 영

어 수준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한국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며 대학 차원의 언어교육 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다. 강의뿐 아니라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 동아리, 취업·진로활동, 학생회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내·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하며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자 이민정책의 시작인 우리 대학 안에서부터 기회와 권리의 평등, 다양성 존중, 상호 교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언어교육, 인식 개선과 공유하는 영역의 확장을 통해 우리 대학이 글로벌 통합교육을 선도하기를 2026년 새해 소망으로 기대해 본다.

문화나들이

9회 말 2아웃의 마음으로



신유빈(바이오통합공학·23)

최근 ‘이곳’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는 출범 이후 최초로 정규시즌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올해는 1,231만 2,519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여름에도 각 구장의 전석 매진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필자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야구장 근처에 살아 필자의 취미는 자연스럽게 야구 관람이 됐다. 하교 후나 쉬는 날이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놀 야구장을 찾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휴대전화로 실시간 중계를 시청한다. 집중해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야구에 흥미가 없는 주변 친구들은 ‘어느 부분이 그렇게 재미있냐’고 묻곤 한다. 야구는 혼자서 아니라 함께 즐기는 스포츠다. 야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열자리에 앉은 낮선 이와도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선수단, 팬, 응원단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 수만 명이 한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고 투수의 공 하나, 타자의 스윙 한 번에 동시에 탄성을 내뿜는다.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이웃 간의 연결이 희미



해지는 시대에 야구장은 오히려 뜨거운 연대의 공간이 된다. 또 야구는 시간이 아닌 흐름과 싸우는 스포츠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경기장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흐른다.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투구를 준비하는 투수와 중요한 상황에 들어서서 홈런 타자, 그리고 동점의 팽팽한 상황에서 슬금슬금 도루를 준비하는 주자까지. 이런 순간을 지켜보는 팬들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야구에는 언제나 한 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점 한 점씩 점수를 쌓아 올리는 다른 종목과 달리 너적의 리드가 한순간에 뒤집히기도

한다. 때로는 공지에 물린 상황에서 단 한 개의 스윙이 경기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이 야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연장전도, 실책으로 무너지는 순간도, 모든 것을 포기한 시점에 터지는 홈런도, 야구는 언제나 변수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닮았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실패의 순간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다음 타석이 있고 다음 경기와 다음 시즌이 있다. 당장 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야구도, 삶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결과는 끝까지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필자에게 야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방식이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각자의 1루에서 출발해 2루, 3루를 향해 나아가며 실책을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타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한다. 또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를 막지 않듯 야구는 필자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건넨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잡히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것이 필자가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다. 승부의 결과와 관계없이 늘 새출발

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곳에 필자는 다시금 발을 들일 것이다. 필자처럼 야구장에서 특별한 이유를 찾거나 감동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응원하는 팀이 없어도, 규칙을 몰라도 괜찮다. 경기장의 선선한 바람과 밝은 조명 아래 들려오는 응원소리, 맛있는 간식 냄새, 누군가의 야유와 누군가의 환호. 그저 자리에 앉아 공 하나가 포수 미트에 꽂히는 소리를 들으면 구경만 해도 제법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새 시즌이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작심살일



이재원 기자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마주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전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작심살일’에서는 기자가 직접 도전하고 그 생생한 후기를 남긴다.

오늘날 SNS는 단순한 소통 수

단을 넘어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에서 파생되는 유행은 며칠 단위로 변화하며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세대별 SNS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SNS 이용률은 58.1%이며 Z세대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5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밀레니얼 세대 38분 ▲X세대 30분 ▲베이비붐 세대 22분 순으로 나타났다.

SNS 끊기 도전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다. 도

전에 앞서 스마트폰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4시간 17분을 사용했고 이 중 SNS 사용 시간은 1시간 3분이었다. 필자가 주로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으로 스토리와 게시물 업로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소통도 대부분 다이렉트 메시지(이하 DM)로 이뤄졌다. 또한 수시로 릴스를 내리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흘러 있는 경우도 잦았다. 이런 습관을 끊기 위해 필자는 도전을 시작하기 전 인스타그램에 일주일 잠금을 설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학길에서 나타났다. 필자는 평소 1시간가량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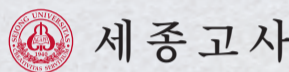
하철 이동 시간 대부분을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며 보냈지만 인스타그램 사용을 중단하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됐다. 그러자 그동안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시간대에 통학하는 과잠입은 학우들의 모습, 정담역과 자양역 사이로 보이는 한강 등 익숙하지만 놓치고 있던 장면들이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이동하기도 했는데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수업 집중도 또한 이전보다 높아졌다.

SNS를 끊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습관도 드러났다. 강의 쉬는 시

간마다 스마트폰을 꺼거나 잠들기 전 침대에 눕는 순간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행동들이었다. ‘10분만 보고 자자!’ 했던 것이 늘 1시간이 되곤 했던 이유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마다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평소보다 더 빨리 잠들었고 아침에는 머리가 가벼웠다. 물론 도전이 쉽지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DM 알림이 뜰 때마다 일주일 잠금을 풀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릴스에서 유행하는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러나 3일 차쯤부터는 ‘굳이 지금 필요있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5일 차쯤

되니 SNS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가 충분히 채워졌다. 일주일간의 실천은 SNS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화면에 쏟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SNS를 멀리하기보다는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활용해 균형을 유지해 볼 생각이다. 잠깐의 멈춤이 하루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하루만이라도 SNS를 꺼두고 보기를 권한다. 잠깐의 거리 두기가 생각보다 큰 여유를 만들어줄 것이다.

세종고사



이름: _____
 학번: _____

1. 제39대 총학생회로 당선된 선거 운동본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면)
 답: _____

2. 현재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백신은 무엇인가요? (2면)
 답: _____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대 신문사

- 답안지를 채워라!
 - 1. 신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
 - 2. 카카오톡에서 @세종대신문을 추가한다.
 - 3. 카카오톡에 문제의 답과 아래 사항을 보낸다.
-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708호 당첨자
 - 정답: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당첨자: 박윤채(행정학·25), 김영광(중국어통상학·24)
- 정답: 00 / 00000
- 이름 / 학과 / 학번

일주일간 SNS 끊기

편집국장의 시선

치열함이 남긴 흔적



박혜린 편집국장

필자는 '열심히 살겠다'는 열정 하나로 신문에 들어왔다.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는 없었으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해보자는 의지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기자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치열했고 매일이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다.

수습기자로 처음 참여한 700호 기획 면에서 필자가 작성한 문장은 단 한 줄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수습기자의 글은 원래 다 그렇다'는 선배 기자들의 말은 위안이 되지 않았고 아쉬움과 오기가 뒤섞인 마음은 필자를 다시 책상앞에 앉혔다. 이후 매 호 기사 작성과 피드백을 거치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정기자로 임한 마지막 호인 705호에서는 학점포

기제도 관련 13면 분리 보도와 계절 학기 관련 단면 보도의 책임자를 맡았다. 모든 보도면에 필자의 이름과 바이라인이 새겨졌을 때 비로소 필자의 성장을 체감했다.

편집국장으로서 부임한 뒤에는 한 호 전체를 책임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체감했다. 지원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매 순간, 모든 기사, 한 호 한 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 학기의 목표였다. 그러나 부임하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은 인원 감소였다. 예상치 못한 인력난으로 인해 기존 방식대로 지면을 발행하지 못한 점은 신문사 활동 중 유일할 아쉬움으로 남았다.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기존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컸다. 조판 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동료 기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문장을 다듬었고 쉽표 하나, 단어 하나가 전체 지면의 결을 좌우한다는 생각에 치열하게 고민했다. 신문사 활동의 또 다른

어려움은 학우들의 무관심이었다. 본지가 진행하는 설문조사의 최소 응답자인 100명을 채우는 데만 꼬박 3주가 걸렸다. 내부의 치열함과 달리 외부의 냉랭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이 활동의 의미를 되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기도 했다. 편집국장으로서 처음 발행한 706호에서는 '2025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에 참여해 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기사 작성과 편집국장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벅했지만 결과와 모든 고생을 충분히 보상해 줬다. 매 호 발행을 무사히 마치고 신문이 배포대에 놓이는 순간 다음 호수를 위해 달릴 힘이 생겼다.

동기들과의 연대 역시 필자를 지탱해 준 또 하나의 힘이 됐다. 늦은 밤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무심코 던진 메시지에 모두가 답장을 보내며 서로를 격려했던 순간들은 고된 시간을 버티게 해준 큰

힘이었다.

신문사 활동은 늘 벅잡고 하루하루가 거대한 도전이었다. 필자는 이 모든 고난을 완전히 이겨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묵묵히 견디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가치는 책임감이다. 편집국장 부임 초반에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신문사 생각뿐이었다. 매 선택과 판단이 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 속에서도 필자가 내린 선택과 결정은 후회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신문사 활동을 통해 필자는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자부한다. 이 경험은 앞으로 마주할 여러 무게를 견디게 해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우들이 신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이는 기자들이 앞으로 겪을 모든 고된 시간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문사에서의 시간과 경험이 동료 기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설 ▶1면에서 이어짐

총학생회 성명서가 드러낸 소통 구조의 한계

제38대 총학생회 '연'(이하 총학생회)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성명서는 단순한 갈등 표출이 아니다. 4.89% 등록금 인상 이후에도 대학 의사결정에서 학우 의견이 반복적으로 누락된 불신이 표면화된 결과다. 이는 특정 사업의 찬반 논란을 넘어 우리 대학 소통 구조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대양AI센터 중앙 출입문 폐쇄로 인한 동선 변화, 학술정보원 앞 동상 설치 등 학우 생활에 직결된 사안들은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됐다. 등록금 인상 당시 대학본부가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성명서는 단발성 불만이 아니라 일방적 추진이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핵심은 학우 의견이 배제되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우리 대학에는 열린 총장실 등 학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형식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이용 현황과 처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창구가 의견 수렴 통로로 기능하는지 단순 민원 접수 조치에 머무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학우의 의견이 사업 진행에 반영이 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또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요 사업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관련 정보가 공식이나 문서 형태로 게시되더라도 일부 게시판에만 머무르는 방식으로는 학우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소통 구조에서 핵심은 절차의 존재 여부가 아닌 절차가 실제로 기능하는가다. 회의 한번, 공지 한번으로 절차 준수를 주장하기보다는 학우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질문

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결정이라도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회의록 공개, 상시 Q&A 창구 등의 운영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학우를 결과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논의의 파트너로 인식할 때 결정에 대한 동의 수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학생자치기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학생자치기구는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꾸준히 제기해왔는지, 학우 의견을 듣고 토론할 공론장을 얼마나 상시적으로 마련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기구는 특정 사안 발생 시에만 등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등록금·공간·대관 정책 등을 평소에도 꾸준히 감시하고 학우 의견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성명서 발표 이후 약속 이행 점검과 차기 총학생회의 인수인계를 통해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닌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대학본부의 대관 기준, 등록금 사용처, 주요 공간·조경 사업 추진 과정 등을 학우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자치기구는 간담회, 온라인 플랫폼, 정기 설문 등으로 학우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회의록과 합의를 다음 기수로 있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이번 성명서는 우리 대학 의사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경고다. 대학본부와 학생자치사회가 서로를 비판하는 상대가 아닌 함께 대학 운영을 책임지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나눌 때 소통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성명서가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 참여, 책임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한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기자가 말한다

다시 돌아온 뜨개, 취미를 넘어 문화로



김예린 기자

속도와 효율이 중심이 되는 지금, 뜨개는 뜻밖에도 현대인의 취미생활로 부상하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뜨개 카페에서의 신한카드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런 뜨개 열풍의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자 사람들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뜨개가 주목받게 됐다. 실제로 뜨개 키트로 워크숍을 운영한 스티치 앤드 스토리(Stitch&Story)의 지난 2020년 3

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0% 증가했으며 4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3% 증가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스티치 앤드 스토리 공동 창업자 제니퍼 램(Jennifer Lam)은 '재택근무가 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공예에 눈을 돌렸고 뜨개 키트를 구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NS를 통한 신규 입문층 유입 역시 뜨개 열풍에 크게 기여했다. 유튜브의 '대바늘 기초' 영상은 조회수 약 273만 회, '코바늘로 클로버 뜨는 법' 영상은 조회수 약 228만 회를 기록했다. 뜨개와 어린이의 합성어인 '뜨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뜨개질 약 128만 개, #뜨개 약 51만 개, #뜨린이 약 2.7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뜨개는 하나의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했다.

뜨개 시장의 변화도 뜨개 열풍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뜨개 용품을 쉽게 구하기 힘들었지만 최

근에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뜨개 키트가 출시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뜨개 카페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간이 생겨나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바늘이야기'는 뜨개 용품 판매, 뜨개 작품 전시, 카페를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바만주(바늘로 만난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뜨개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타인과 연결되는 사회적 취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뜨개는 K-POP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트와이스의 'This is for' 무대 의상은 모두 뜨개로 제작됐으며 붉은색이라는 통일된 톤 아래 서로 다른 재질의 실을 사용해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르세라핌의 사쿠라는 지난 1월 자신의 취미생활을 기반으로 한 뜨개 굿즈 브랜드 '꾸로세(KKUROCHET)'를 론칭했으

며 무대에서 직접 뜬 니트 크롭탑을 착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이릿 민주의 '달려온 고양이', 에스와윈터의 'Supernova' 등 다양한 무대에서 뜨개 의상을 찾아볼 수 있다.

필자 역시 오랜 시간 뜨개를 즐겨온 사람으로서 최근 뜨개 열풍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반갑다. 이전에는 뜨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고 함께 취미를 공유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뜨개 취미를 공유하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뜨개의 가장 큰 매력은 손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만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들쭉날쭉하고 고르지 못한 작품이 점차 원하는 모양을 갖춰가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바쁜 현대인들도 잠시 멈춰 뜨개를 즐기는 여유를 누리보기를 바란다.

사설 ▶2면에서 이어짐

뒤쳐진 HPV 예방 정책, 국가에 책임을 묻다

국내의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이하 HPV) 예방 정책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HPV 백신 중 예방 범위가 가장 넓은 4가 실 9가 백신(이하 9가)은 이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이하 NIP)은 여전히 4가 백신(이하 4가)만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NIP 확대를 내세운 바 있으나 기존 4가의 지원 대상 확대에 국한돼 있다. 9가는 4가가 예방하는 HPV 16·18형 외에도 31·33·45·52·58형 등을 추가로 차단해 자궁경부암의 약 90%를 예방할 수 있다. 백신 기술이 고도화됐음에도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불필요한 감염과 질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HPV 예방을 여성의 건강 문제로만 한정 짓는 사회적 인식 또한 문제

다. 남녀 모두 HPV에 감염될 수 있으며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에게도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항문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20·30대 생식기 사마귀 환자는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약 5.4배 많았다. 질병 위험이 남녀 모두에게 존재하지만 백신 접종 책임과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돼 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민경진 사무총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 체계의 미비와 미디어 환경의 정보 왜곡 등이 HPV 백신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HPV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가의 높은 접종 비용 역시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3회 접종 시 60~7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은 공중보건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더 높은 예방 효과를 위해 개인이 9가 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 구조는 예방의 격차를 제도적으로 고착하는 셈이다. NIP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 현재의 지원 수준은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암관리계획과 현행 HPV 예방 정책의 불일치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예방 가능한 암 유병자를 20% 이상 줄이고 HPV 예방접종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8년 기준 200만 명이던 암 유병자가 2025년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암 유병자는 이미 258만 8,079명을 넘어섰다. 암 예방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HPV 예방의 핵심 수단인 9가 지원을 미루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계획과 현실이 전혀 맞물리지 않는다.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 9가 전환을 위한 53억 원 증액안이 포함된 점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HPV 백신 관련 전체 예산도 확대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번 논의가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접종 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NIP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9가는 이미 국내에 충분히 도입돼 있고 의료 현장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돼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다. 정부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고효능 백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국민을 더 이상 두고 보기만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 근거와 공중 보건 원칙에 따라 정부는 HPV 예방 정책을 4가에서 9가로 전환하는 결단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

독자 참여와 기사제보 바랍니다

세종대학우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메일 press@sejong.ac.kr
- 인스타그램 [@sejongpress](https://www.instagram.com/sejongpress)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세종대신문](https://www.kakao.com/@sejongdaesinmun)

*세종대신문 앱으로 보는 방법
세종대학교 앱 → 상단 메뉴 → 대학생할 → 세종신문

세종 만평

최정희 (만화애니메이션선택학·21) 객원기자

몸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하는 창조적 예술의 공간 무용과

우리 대학 무용과는 무용의 창조적 기량과 학문적 깊이를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발달시켜 건강하고 품격 있는 무용 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기 이론 중심의 학과다. 무용과의 교육 목표와 비전, 학과 생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본지는 김연수 학생회장과 강다경 학우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혜빈 수습기자 been423@

무용과에 대해

무용과의 학과 분위기는

김연수 학생회장: 무용과는 다른 학과보다 인원이 적어 학과 분위기가 매우 활동적이며 서로 간의 유대감도 강하다. 연습 시간이 길고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 또한 대학 내부 공연뿐 아니라 외부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선후배 간 활발한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졸업 후 진로 목표나 관심 있는 분야는

김연수 학생회장: 무용수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2학년 때부터 교직 이수를 시작해 관련 과정을 공부해 왔다. 발레 무용수이자 발레를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 대학은 교직 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어 실습 기회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다. 무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기초와 바른 자세 및 동작을 가

르칠 수 있는 발레 선생님이 되는 것이 현재의 진로 목표다.

강다경 학우: 무용 교육 분야에서 교직을 이어가고 싶다. 학생들에게 무용의 즐거움과 표현의 기쁨을 전하며 무용을 통해 느꼈던 감동과 성장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 기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무용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고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고 싶다. 학생 개개인이 가진 개성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며 긍정적인 경험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본인의 목표다.

무용과 학우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의 흐름은

김연수 학생회장: 최근 무용과 다른 예술이 융합되는 흐름이 특히 뚜렷해지고 있다. ▲미디어 ▲설치 예술 ▲영상 ▲음악 등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등장하고 있다. 같은 움직임이라도 다른 예술과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앞으로 무

용수들에게는 기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융합적인 감각과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것 같다.

무용과만의 주요 행사나 프로젝트는

김연수 학생회장: 매년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파트가 각각 따로 공연을 진행한다. 발레 파트의 경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헬로 발레’ 갈라 공연과 외부에서 공연하는 장선희 발레단의 ‘리브 스토리’, ‘호두까기 인형’ 등이 있다.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파트도 별도의 갈라 공연을 선보인다. 장르와 공연 이름은 다르지만 공연 형식은 유사하다.

강다경 학우: 학기 중 한 번씩 봄·가을 창작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회를 통해 안무자로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매 발표회마다 새로운 작품과 도전에 임하게 된다. 그렇기에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무용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자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무용과에 진학하며

무용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김연수 학생회장: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무용과에 진학한 만큼 발레는 삶의 일부였고 자연스럽게 무용이 진로가 됐다. 세 번의 입시를 치르면서 체력적·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무대에서 춤을 추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순간은 가장 행복했고 무용을 더 깊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무용과에 진학하게 됐다.

강다경 학우: 어릴 때부터 몸으로 활동하는 것에서 큰 즐거움을 느껴 자연스럽게 무용을 접하게 됐다. 무용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생각과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개가 됐고 무대 위에서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쌓기 위해 무용과 진학을 선택하게 됐다.

무용과에 입학전후 차이점은

강다경 학우: 입학하기 전에는 기본기 연습과 공연 준비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창작 과제가 많아 놀랐다. 작품을 직접 만들고 움직임을 찾아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용을 보는 시야도 넓어진 것 같다. 또한 이론 강의도 생각보다 많이 움직임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무용의 흐름이나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깊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학기 중 한 번씩 창작 발표회 무대에 오를 수 있어 준비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실제 무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처음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험들 덕분에 무용을 더 좋아하게 됐으며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됐다.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면

김연수 학생회장: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전통 타악 실기’ 강의

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북춤이나 장구 등을 다루며 강의가 진행됐고 소고춤으로 강의를 들었다. 발레 전공은 주로 부채나 탭버런 같은 소품만 사용하고 현대무용에서는 악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통 악기에 늘 호기심이 있었다. 실제로 소고를 들고 춤을 춰보니 새롭고 재미있었다. 특히 소고춤은 리듬 감각과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발레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이전에는 배경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소고춤은 직접 악기로 리듬을 만들어 내며 음악과 춤을 조합하는 경험이 새로웠다. 몸을 쓰는 방식이 달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연습할수록 흥이 나고 자신만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다.

강다경 학우: 가장 기억에 남는 실기 강의는 ‘현대무용 테크닉’ 강의다. 매 강의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만 몸의 작은 변화나 감각에 따라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이 새로웠다. 기교를 넘어서 ‘내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강의이기도 했다. 무릎, 어깨, 팔꿈치와 안경을 키워드로 정해두고 그 부위만을 써서 움직임을 확장해 나가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다. 처음에는 ‘이 부위들을 쓰면서 어떻게 춤으로 풀어내지?’라는 생각이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평소에 쓰지 않던 움직임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순한 기본 실기가 아니라 몸을 인식하고 관찰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서 특히 기억에 남았다.

무용과의 가장 큰 매력은

강다경 학우: 무용과만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몸과 마음, 생각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이야기를 춤과 움직임으로 풀어낼 수 있어서 무대 위에서는 제 자신을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습과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스스로를 다잡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동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작품을 완성해 가는 순간에는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고 공감하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살아 있음을 체감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이런 경험 덕분에 무용과만이 가진 매력이 깊이 느끼고 무용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다.

전공 선택 후 무용과에 대한 생각은

김연수 학생회장: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자신을 많이 성장시켰다.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대학을 선택할 만큼 배운 것이 많다. 함께 연습하고 공연하며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힘이 돼 준 동기들과 후배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는 대학 생활을 즐기되 자유와 함께 책임감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또한 무용수로서 몸과 마음의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다. 쌓아온 시간이 무대 위에서 빛나려면 기본적인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무용과가 지금까지 함께 성장하는 학과로 계속 이어진다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다경 학우: 무용과는 매 순간이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한 곳이다.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스스로를 다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강의 및 연습 그리고 발표회를 통해 배운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혼자서 아닌 함께라는 감각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 무용과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학우들이 몸과 마음, 태도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무용과를 꿈꾸는 이들에게

무용과의 핵심 역량은

김연수 학생회장: 기본적인 체력과 테크닉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연습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주입식 교육에 가깝다. 틀에 맞춰 무작정 연습만 하는 경우가 많으나 무용은 단순히 기술이나 테크닉만 잘한다고 끝나는 예술이 아니다. 무대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이 드러나야 하고 같은 동작이라도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작품 속 인물에 몰입하는 능력과 안무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몸으로 전달하는 표현력이 매우 중요하다.

무용과로의 전과나 복수전공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김연수 학생회장: 실기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체력과 시간 관

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직을 이수하거나 복수전공을 하고 싶다면 체력과 시간을 잘 분배하며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학부 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은 웬만하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용과라고 해서 무용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는 경험이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회에 나가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것을 스스로 찾아야 하므로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를 바란다.

강다경 학우: 무용은 생각보다 몸과 마음을 많이 쓰는 전공이기 때문에 힘든 순간도 분명 있지만 그만큼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즐거움도 크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막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무용을 배우는 재미와 보람을 분명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무용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무용과 진학을 꿈꾸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김연수 학생회장: 기본기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으면 좋겠다. 조금 지겨울 수 있지만 건강 유지와 체중 관리도 실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무용은 긴 터널 속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며 쌓아가는 예술이고 관객에게 그대로 드러나 자신의 상태가 잘 보이는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춤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더욱 즐겁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다경 학우: 꾸준한 몸 관리와 연습 습관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 몸을 관리해야 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칭과 근력, 컨디션 관리를 통해 몸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입학 전부터 자신만의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며 즐거움을 느낀다면 무용과 생활을 훨씬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